

## 역대 국어관과 국어교육 평가의 방향\*

김 광 해\*\*

### 1. 도 입

이 글은 ‘현재 우리의 국어교육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출발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국가의 중요 문서인 교육과정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첫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어」 과목 속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해 본다. 이 조사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막연한 「국어」라는 과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즉 우리의 ‘국어관(國語觀)’을 조사, 정리해 보자는 것으로서, 요컨대, 도대체 교과 과목으로서 「국어」가 무엇이길래, 거기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길래 현장의 국어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정리된 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살핀다. 여기서는 주로 우리의 교육 현실, 입시를 위한 평가 부분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국어관’에 비추어 어떤 문제를 가지는 것인지 토론하겠으며, 가능하다면 처방까지도 제시해 보고 싶다.

단어가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자주 사용되면, 즉 사용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의미가 다의성을 띄게 된다는 것은 의미론의 상식이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국어」라는 말처럼 오랜 세월이 걸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매우 빈도 높게 사용되어 온 용어라면, 서로 다른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저마다 다른 다양한 의미로 이 말을 해석하는 다의화의 정도 또한 최고의 수준에 있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 방면의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이르게 되면, 이 말의 의미에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배경들, 이를테면 심오한 역사적, 민족적, 철학적, 사상적 배경까지를 추가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말은 언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펼칭 사용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가 오늘 새삼스럽게 「국어」의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된 것도 이 말의 의미가 난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거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국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다. 국어에 관계되는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국어관(國語觀)’을 조사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본 논문에서는 역대 교육과정 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국어관을 시대별로 조사, 정리하여 비교해 보자는 다소 고루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당시에 어떤 역사적, 정치적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또 현재 볼 수 있는 문면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역대 교육과정은 당대 최선의 지혜와 역량이 결집된 문서이며, 따라서 국가 차원의 국어관을 공개적으로 포고한 유일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이 잡히기는 하였지만 이른바 ‘국어관’의 실제 변천과정을 정리해 내는 일은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 작업을 해보니 그 결과는 의외로 명료하였다. 역사적으로 그 비중이 있어서 다소 변화를 겪어 오기는 하였지만, 현재 우리가 「국어」 과목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항목들을 계속 소중하게 생각해 오고 있었던 흐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사 작업을 통해서 얻은 경험적 수확은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들이 과연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국어교육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그 원인을 밝히며, 특히 평가와 관련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 보겠다.

## 2. ‘국어관(國語觀)’의 변천

우리 국민들의 ‘국어관’을 구성하는 공통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역대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국어관(國語觀)을 정리해 내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어관은 시대의 요구나 학문의 발전, 교육관의 변화 등에 따라 굴곡이 없지 않았을 터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자료는 바로 역대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교수 요지, 방침, 교수 목표, 내용’ 등의 제목 아래 해당 시기의 국어관이 함축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집하여 핵심어를 추출한 뒤 시기별 비교하면 국어관의 변화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표2> 교육과정 체제의 변천

교수요목기 1946. 11	1차 1955. 8	2차 1963. 2	3차 1973. 2	4차 1981. 12	5차 1987. 6	6차 1992. 9
I. 교수요지 II. 교수방침 III. 교수사항  IV. 교수의 주의	I. 목 표 II. 영 역 III. 각학년의 지도 목표  IV. 지도방법	I. 목 표 II. 학년목표 III. 지도내용  IV. 지도상의 유의점	가. 목 표 나. 내 용 <지도 사항 및 형식>, <제재 선정의 기준> 다. 지도상의 유의점	가. 교과목표 나. 학년목표 및 내용 1) 목 표 2) 내 용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1) 지 도 2) 평 가	가. 교과목표 나. 학년목표 및 내용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1) 지 도 2) 평 가	1. 성 격 2. 목 표 3. 내 용 가. 내용체계 나. 학년별 내용 4. 방 법  5. 평 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기술 체계는 역사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씩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 모습은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교수 요지, 방침, 교수 목표,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들을 추출하여 핵심어들을 조사해 보는 방식으로 국어관의 역사적인 변천 상황을 정리해 본다.

## 2.1. 교수 요목

<p>&lt;교수요지&gt;                  국어를 잘 알고 잘 쓰게 하여, 우리의 문화를 이어 확충 창조하게 하고 겸하여 지덕(知德)을 열어 건전한 국민 정신을 기르기로 요지를 삼음.</p> <p>&lt;교수방침&gt;                  ㄱ. 국어의 됄됨이를 밝히며, 그 국민다운 사상 감정의 표현 방법을 가르치어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이상 체험의 명확한 발표를 익히고 국어 애증의 생각을 기름.                  ㄴ. 국어, 국문의 전통과 그 표현을 이해케 하고, 국어, 국문의 사적 발달을 구명하여 종래의 사상, 문화의 연원과 발달을 자세히 알려 국민 정신을 기르고 우리 문화를 창조 확충케 하는 신념을 배양함.                  ㄷ. 국어, 국문을 통하여 덕육, 지육, 체육 등의 정신과 식견을 길러 건강한 중견 국민의 사명을 스스로 깨닫게 함.</p> <p>&lt;핵심어&gt;                  국어 이해, 국어 사용, 우리 문화 계승 발전, 건전한 국민 정신, 국어 표현법, 발표 능력, 국어 사랑, 국어의 전통, 국문의 전통, 국어, 국문의 사적 발달 구명, 사상의 연원, 문화의 연원, 국민 정신 함양, 우리 문화, 정신과 식견 신장</p>
---

교수 요목 시기의 국어관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위에서 보다시피 매우 간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국어」 과목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이미 고루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징이라면 앞으로 전개될 그 어느 시기에 비해서도 '민족 정신'과 관련된 내용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교수 요목의 교수 요지와 방침이 이러한 방향으로 성립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金熙秀, 1995; 5-7). 여기에는 개화기 이래 국어학자들의 민족주의 언어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즉, 국어 운동을 곧 민족 운동, 민족 독립 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사상이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사상의 성립에는 피히테(Fichte, 1762-1814), 훔볼트(Humboldt, 1767-1835)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한 일본학자들의 언어 사상 일체관, 또는 민족주의 언어 사상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시절의 이러한 국어관은 기본적으로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일제의 잔재를 떨쳐 버리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 시기의 국어교육에서는 일제 침략기에 있었던 조선어과 폐지 등의 식민지의 언어 교육에 반발하는 한편, 주인되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 전통을 중시하는 방향이 강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를 들면 고전(옛글)의 교육을 강화되는 등의 반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국어교육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중시하고 여기에 작용하는 국어교육의 특수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은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띠게 되고 모국어 교과를 애국애족 교육을 위한 핵심 내용 교과, 국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의 도구 교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취하게 된다. 이런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부침(浮沈)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족주의적 사상은 현대를 산다고 해서 어느 한 순간에 훌쩍 벗어 던져 버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 2.2. 제1차 교육과정

### <목적>

고등학교 국어과 학습의 목표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언어 생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야 하며, 중견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갖추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요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함은 민주 국가의 공민으로서의 언어 생활을 훌륭하게 할 수 있게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모든 언어 활동이 정확하고 세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개인적인 언어 생활의 기능을 쌓게 한다는 것은 졸업 후에 각각 다른 직업 생활을 가지게 될 학생들에게 그들이 종사할 직업에 따르는 특수한 언어 기술을 체득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중략) 중견 국민으로서의 교양이라 함은 언어 생활에 관한 교양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언어 사용에

관한 면과, 문학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언어 생활에 나타나는 교양이란 국어를 정확하고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 문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것은 (중략) 기초적인 이해와 감상의 태도 및 능력이 모든 학생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중략) 중견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위한 문학 지도는 상당히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

1. 남의 생각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2. 자기의 생각을 남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리고 능란하게 발표한다.
3. 언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매일 매일의 생활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정의껏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4.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결정하는 바릇을 가지게 한다.
5. 방송, 영화, 연극, 소설 등을 바르게 평가하고, 그릇된 것을 알아 낼 수 있는 식견을 가지게 한다.
6. 여러 가지 독서 기술을 체득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안다.
7. 의사 표시의 사회적인 방편으로서의 언어 기술을 체득하고, 아울러 인생의 반영으로서의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힘을 기른다.
8. 학생들이 장래에 사회에 나가 언어 생활 면에서 직업인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9. 학생들의 개별적인 소견과 능력의 차이를 중시한다.
10. 국민적인 사상 감정을 도야한다.
11. 우리의 언어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한다.
12. 국어에 대한 이상을 높이고, 국어 국자(國語國字)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핵심어>

언어 생활의 기능, 중견 국민으로서의 교양, 민주 국가의 공민,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정확하고 세련된 언어 활동, 종사할 직업에 따르는 특수한 언어 기술 체득, 언어 생활에 관한 교양, 언어 사용, 문학 감상과 이해, 정확하고 품위 있는 국어 사용, 문학 지도, 다른 이의 생각 이해 및 판단, 자기의 생각 발표, 언어에 대한 개념, 주의 깊은 관찰, 정확한 해석, 방송, 영화, 연극, 소설 등의 평가, 독서 기술 체득, 독서의 즐거움, 언어 기술 체득, 문학 작품 감상, 창작, 직업인으로서의 언어 생활, 국민적인 사상 감정 도야, 언어 문화 이해, 국어에 대한 이상, 국어 국자(國語國字) 문제에 대한 관심

제1차 교육과정의 문면에 나타난 국어관을 교수요목기와 비교하여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다. 이 시기의 교육관에는 19세기 관념철학 사조가 깔려 있는데, 이 역시 일면 일체의 잔재이다. 여기에 193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서 성행했던 실용주의 교육철학이 본

격적으로 유입되어 표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수입하는 원천이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주어 생활중심,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적극 도입되면서, 국어관도 도구교과, 형식교과, 기능교과라는 개념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이에 따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같은 국어활동을 의미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sup>2)</sup>

따라서 이 시기의 국어관에서는 관념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국어관과 기계적, 도구적 언어관을 배경으로 하는 국어관이 혼합됨으로써 발생하는 충돌 현상이 발견된다. 이렇게 된 연유는 역시 시대적 상황에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 도의의 회복, 반공정신 교육 강화, 민족정신의 재발견 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여야 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 직후부터 미국 교육 사절단의 영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사조를 수용하려는 의욕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2. 국어과의 지도 목표>에서는 ‘언어의 사회 형성, 인간 형성, 문화 형성’이라는 삼대기능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듀이의 것이다(金熙秀, 1995; 9).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 사항들도 생활, 경험, 필요, 욕구, 흥미, 개성 존중 등에 치중하고 있어서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金熙秀, 1995; 9). 이러한 기계주의, 도구주의 언어관은 경험주의 사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관은 처음부터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비롯된 것이므로, 언어와 정신의 관계를 거의 무시하고, 언어 생활의 실용적, 행동적인 측면을 중시하며, 언어 교육의 목표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능(skill)의 신장에 두고 언어 교과를 생활의 도구 교과, 형식 교과, 기능 교과로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제1차 교육과정에서도 음성 언어인 말하기, 듣기를 중요시한다든가, 이에 준하는 국어사용기능 훈련을 중시하는 국어관이 부각되었음을 목격할 수 있다. ‘국어지식, 문학, 국어문화, 민족 정신’등에 관한 관심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된 내용으로 보아 다분히 형식적인 느낌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핵심어의 양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지 않아서 이 교육과정은 ‘국어 활동’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국어관을 바탕으로 성립된 교육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각각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시각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 내용의 성격과 다른 영역들과 대조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어활동’ 하나로 포괄된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 2.3. 제2차 교육과정

<목표>

- (1) 세련된 국어의 교양을 쌓아 건전한 사상의 소유자로서 민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정확하고 품위 있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높여, 유능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3) 이해력과 표현력을 길러, 식견과 취미를 풍부히 하는 기능과 태도를 기른다.
- (4) 정확하게 말하고 듣는 습관과, 문학을 감상하는 태도를 길러 국어의 이상을 높이도록 한다.
- (5) 일상 생활에 널리 쓰이는 한자, 한문 및 고전에 대한 소양을 높인다.

<구체적 목표>

9항 “학생들의 개별적인 소견과 능력의 차이를 중시한다.”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책을 읽고, 취미를 기르기 위하여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로 바뀐 것 말고 나머지는 1차와 동일함.

<핵심어>

세련된 국어 교양, 건전한 사상, 민주 생활 개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 유능한 사회 생활, 이해력과 표현력, 문학 감상 태도, 국어의 이상, 한자, 한문 및 고전에 대한 소양, 다른 이의 생각 이해 및 판단, 자기의 생각 발표, 언어에 대한 개념, 주의 깊은 관찰, 정확한 해석, 방송, 영화, 연극, 소설 등의 평가, 독서 기술 체득, 독서의 즐거움, 언어 기술 체득, 문학 작품 감상, 창작, 직업인으로서의 언어 생활, 독서 습관, 국민적인 사상 감정 도야, 언어 문화 이해, 국어에 대한 이상, 국어 국자(國語國字) 문제에 대한 관심

제2차 교육과정은 5. 16 이후 군사정부 아래서 공포된 것이다. 제2차 교육과정의 내용은 일단 제1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많이 비슷하다. 제1차 과정에 있던 ‘홍익인간의 이념’, ‘문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 빠졌지만, 듀이의 언어의 3대 기능설을 전제하고 있는 것도 제1차 교육과정과 똑 같다. 가령 ‘국어교육은 위에 든 언어 기능을 바탕으로 한 것인 동시에,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언어 문화의 체험과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등의 진술 등이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국어관은 1차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실용주의 사조, 행동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계적, 도구적 언어관의 영향을 받아, 「국어」를 언어 생활의 도구 교과, 형식 교과, 기능 교과 쪽으로 바라보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비해 볼 때 ‘국어지식, 문학, 국어문화’ 같은 분야의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빈

약한 모습을 띄고 있는 것도 1차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교육과정은 이른바 개발 철학의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교육관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金熙秀, 1995; 10). 군사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어, 특수성, 자주성이 부각되는 한편, 경제 개발의 필요에서 미국적 실용주의, 생산성, 유용성이 도입되어, 각론에 그 기계적, 도구적 언어관이 고스란히 수용됨으로써 두 가지의 이질적인 언어관이 대립 충돌 현상을 보이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金熙秀, 1995; 11).

## 2.4. 제3차 교육과정

### <일반 목표>

1. 교양 있는 생활에 필요한 국어 사용의 기능과 성실한 태도를 길러서, 효과적이고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2. 국어를 통하여 사고력, 판단력 및 창의력을 함양하고, 풍부한 정서와 아름다움 꿈을 길러서, 원만하고 유능한 개인과 건실한 중견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
3.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더욱 넓히고, 문제를 발견, 해결하는 힘을 길러서,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고, 사회발전에 적응하며 나아가 이를 선도하는 데 참여하게 한다.
4. 국어와 국어로 표현된 문화를 깊이 사랑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 <국어 (I)의 목표>

- 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각 영역의 균형 있는 학습을 통하여 남을 이해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기능을 신장시킨다.
- 나. 국어로 표현된 논리와 정서 등을 깊이 이해하게 하여, 사고력, 판단력 및 창의력을 기르고 풍부한 정서와 아름다운 꿈을 가지게 한다.
- 다. 국어 학습을 통하여, 중견 국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문제를 발견, 해결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
- 라. 국어 국문학의 기초적인 이론 및 각종 형식의 문장을 학습하게 하며, 국어와 국어로 표현된 문화를 사랑하고, 이에 대한 넓은 이해를 가지게 한다.

### <핵심어>

국어사용의 기능, 국어사용의 태도, 언어 생활, 사고력, 판단력 및 창의력 함양, 풍부한 정서, 아름다움 꿈, 건실한 중견 국민 양성, 문제 해결력, 사회발전 선도, 국어 사랑, 국어 문화 사랑, 민족 문화 발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해와 표현 기능 신장, 국어 국문학의 기초적인 이론, 각종 형식의 문장 학습, 국어 이해, 국어 문화 이해



제3차 교육과정의 국어관은 1차, 2차와 현격하게 다른 것이다. 이 시기에는 미국이 이미 고도 산업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지식과 기술, 정보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면서 논리 분석철학, 형식논리학, 논리수학, 인지심리학, 변형문법, 정보이론, 양자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고도의 발전이 이룩되고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 이 많은 양의 지식을 소화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식 자체보다는 기본 개념과 구조 체계를 중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이런 상황에 적응할 것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식 중심,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는 긴급조치, 유신헌법 등이 공포된 시기이다. 1968년에는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었는데, 이 이념이 제3차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국민 정신 교육(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을 통해서 유신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기초 아래 작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문면을 분석, 정리해 보면, 이 때부터 국어교육의 영역들이 뚜렷한 구분이 생기면서 균형을 취해 가는 모습이 보인다. 예컨대, 현재 국어교육에서도 주요 분야로 인정되고 있는 ①국어사용기능의 신장, ②사고력과 판단력의 신장 및 정서의 순화 ③국어 문화의 전수, 그 애호 정신 함양 및 민족 문화의 창조 유발 ④ 국민정신의 함양 등의 항목들이 양적, 질적인 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신(維新)’이라는 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국어과를 정치의 도구 교과, 내용 교과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도구 교과, 형식 교과, 기능 교과로서의 국어 과목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 2.5. 제4차 교육과정

### <교과 목표>

중학교의 교육 성과를 발전시키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 1) 말과 글을 통하여 사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른다.
- 2)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 3)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 문학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며,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게 한다.

### <국어 (I)의 목표>

- 1) 자신의 판단이나 평가를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말하게 한다.

- 2) 말하는 이의 판단이나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며 듣게 한다.
- 3)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독서량을 늘려 가게 한다.
- 4) 여러 가지 표현법과 구성 원리를 사용하여,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 5)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 및 국어사의 개략을 이해하고, 국어의 여러 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 6) 문학이 문화 유산임을 알고,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며,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게 한다.

<핵심어>

국어의 발전, 민족 문화 창조, 창의적 표현, 비판적 이해,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 언어지식, 국어지식, 문학지식, 문학 감상력, 상상력, 인간의 내면 세계 이해, 효과적 말하기, 판단하며 듣기, 글의 이해 및 평가, 독서량 신장, 표현법, 창의적 표현,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질, 국어사, 국어의 규칙, 문화 유산으로서의 문학, 문학지식, 작품 평가, 인간의 내면 세계 이해

제4차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에 이어 ‘국어 지식, 국어 사용, 문학 감상’의 3대 영역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제3차의 연장일 뿐 아니라, ‘국어 자체에 관한 지식, 효과적인 언어 사용 능력 함양, 문학 감상에 관한 교육’ 등의 내용을 강화되었기 때문에 제3차보다 훨씬 더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비판도 듣게 되었다. 이 시기의 국어관은 <2> 국어과 교육 과정 구성의 방향에 정리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네 항목으로 요약된다.

- (가) 국어과의 기본 학습 능력 배양
- (나) 기초지식과 기능 교육 강화
- (다)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
- (라) 풍부한 정서의 함양

이 교육과정은 제5 공화국 출범과 거의 동시에 시행된 것인데, 국어과를 모든 교과 의 중심교과이고 도구 교과로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든가, 국어과 교육을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효과적인 언어 사용의 능력을 신장하게 하는 협의의 교육’이라고 전제하는 국어관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정신 교육, 가치관 정립, 풍부한 정서 함양, 문제 해결력 신장, 우리 문화 애호, 민족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소질 계발’ 등을 강조함으로써 ‘국어 문화’는 물론 ‘사고력’ 교육에 이르기까지도 수용하는 관점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어관은 국어 과목이 언어와 사고, 가치관 및 인격 형성 등에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효과적인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 언어 문화에 대한 관심,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들을 수용하되, 그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을 읽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 2.6. 제5차 교육과정

### <교과 목표>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며,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문학을 이해하며,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

- 1)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언어 사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2)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한다.
- 3) 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창조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국어 (I)의 목표>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게 한다.

- 1) 목적, 대상, 상황에 맞게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말하게 한다.
- 2) 말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내용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판단하게 한다.
- 3) 글의 내용과 짜임을 분석, 종합하고, 이해, 비판하며 읽게 한다.
- 4) 목적, 대상, 상황에 맞게 생각과 느낌을 선정, 조직하여 창의적으로 쓰게 한다.
- 5) 언어와 국어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를 바르게 이해하게 한다.
- 6) 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바르게 이해, 감상하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핵심어>

국어 생활, 언어지식, 국어지식, 문학 이해, 국어의 발전, 민족어 문화 창조, 효과적인 표현과 이해,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 국어 사용, 창조적인 체험, 미적 감수성, 인간의 삶, 민족의 언어 문화 계승, 발전, 효과적인 말하기, 말의 이해와 판단, 글의 이해, 비판하며 읽기, 창의적 쓰기, 국어 이해, 문학의 이해 및 감상, 인간의 삶 이해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은 이른바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제4차 교육과정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이다. 이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첫째, 국어과 과정의 체계화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언어를 교육의 본체로 삼되, 학생들의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다.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언어’로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교수, 학습 상황에서의 주체를 교사가 아닌 학생으로 삼는다.

셋째, 타 교과와의 학습과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내용

의 실제성을 강조한다.

이런 방향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서는 목표로서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라든가,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등의 항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국어사용기능’을 강조하는 강도와 비중이 달라지고 우선 순위가 달라졌다. 각론의 <1> 국어과 개정의 기본 방향에도 1. 성숙한 자아 의식, 2. 자율적인 의사 결정, 3. 기본적인 학습 능력, 4. 합리적인 문제 해결력, 5. 독창적인 표현력, 6. 풍부한 정서를 갖춘 인간 등의 항목을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3차, 4차와 같은 학문 중심적 인상을 주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에 이어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고 언명함으로써 이 교육과정이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방향 정립은 국어과 교육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보해 두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특징적인 단어들은 ‘국어사용기능의 신장’과 ‘학생 중심 교육’이다. 이 때 강조되기 시작한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이라는 슬로건은 국적 있는 국어교육 같은 다른 주요 목표 등과는 상관없이 무색무취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을 뿐이라 하여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어과를 외국어 교과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언어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거나, 가령 논술 시험 같은 평가에서도 그 목표를 오로지 사고력이라든가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데 두자는 것 같은 국어교육관도 이 때부터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도 국어지식과 문학에 대해서도 일정한 배려를 함으로써 균형을 잃지 않았다. 3차, 4차에 이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국어사용기능의 신장을, ‘언어’는 국어의 문법과 올바른 사용법, ‘문학’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 그리고 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기술함으로써 3대 영역의 정립(鼎立)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불변이다. 이러한 경향은 바로 우리나라의 역대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국어관의 특징이기도 하다.

## 2.7. 제6차 교육과정

### <목표>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며,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문학의 이해와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기르며,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게 한다.

1)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언어 사용에 대해

여 바르게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2)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한다.
- 3) 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창조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핵심어>

국어 생활, 국어지식, 문학감상, 국어발전, 언어문화 창조, 표현과 이해, 언어에 대한 태도, 정확한 국어 사용, 문학지식, 창조적 체험, 미적 감수성, 인간의 삶

제6차 교육과정은 기술이 매우 간략해졌다. 각 영역의 내용을 기술할 때, ‘본질, 원리, 실제’의 3 가지 요소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국어과 교육의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그 내용은 거의 제5차 교육과정의 반복이다. 그러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앞세우되, 양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용기능의 신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국어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5차와 마찬가지로 ‘국어지식’, ‘문학’ 부문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어서 3대 영역의 정립(鼎立)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기본적인 국어관에서 국어를 국민 정신과 국어 문화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하는 중핵적인 요소로 보고, 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면을 확인할 수 있다.

## 2.8. 제7차 교육과정

<목표>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핵심어>

언어 활동, 언어의 본질, 문학의 본질, 언어 활동, 정확한 국어 사용, 국어 문화, 국어 발전, 민족어 문화 창달, 언어 활동에 대한 지식, 언어에 대한 지식, 문학에 대한 지식, 국어사용의 원리, 국어의 작용 양상, 국어 자료 비판적 이해, 사상과 정서의 창의적 표현, 언어 현상 탐구, 국어의 발전, 국어 문화 창조, 국어에 대한 태도 신장.

제7차 교육과정의 거시적 체제는 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만을 본다면 제6차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에는 제6차 교육과정 기간에 다양한 공간에서 수확을 거둔 연구의 결실들을 수렴되었다. 그 결과 ‘성격 제시, 목표 설정, 내용 체계표, 내용 제시, 교수·학습 방법, 평가 측면’ 등의 미시적 부분의 기술이 종전의 교육과정들에 비해서 한 단계 충실해졌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읽을 수 있는 ‘국어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지적하라면 ‘국어 문화’ 부분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강조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 ‘문화’ 부분은 역대 교육과정에서도 줄곧 문면에서 누락된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기술된 내용이 종전보다 한층 체계화되었다. 이를 제외하고는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영역들의 비중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이런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관도 결국은 종래 국어과의 골격을 유지해 오고 있던 ‘국어활동, 국어지식, 문학, 국어문화’ 등의 영역들을 균형 있게 다룬다는 관점은 불변이다.

이 교육과정의 특이 사항 중의 하나로는 종래의 어떤 교육과정에서든지 등장하고 있던 ‘민족 정신’ 부문에 해당하는 기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집권자들이 주로 우리의 국어교육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쯤으로 치부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항목이 언어인 「국어」를 사용하는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항목이라는 이유로 이런 항목들을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 집어 넣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은 항상 존재했던 것이다. 이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드디어 빠져 버렸는데, 이에 관련된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서는 뒤에 항을 달리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문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교육과정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많은 논란이 있던 ‘수준별 학습 활동’이 국어과에도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학습자 중심 교육’,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 육성’,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 등 제7차 교육과정을 특징지을 수 있는 개념들은 많이 있다.

<표 3> 종합, '국어관'을 알아볼 수 있는 핵심어

	국어 활동	국어 지식	문학	국어 문화	민족 정신
교수요목기	국어 사용, 국어 표현법, 발표 능력,	국어 이해, 국어 사랑, 국어의 전통, 국어의 사적 발달	국문의 전통, 국문의 사적 발달	우리 문화의 발전, 우리 문화 계승	건전한 국민 정신, 사상의 연원, 문화의 정진, 국민 신념, 정신 함양, 정신 신장
제 1 차	언어 생활의 기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정확하고 세련된 언어 활동, 종사할 직업에 따르는 특수한 언어 기술 체득, 언어 생활에 관한 교양, 언어 사용, 정확하고 품위 있는 국어 사용, 다른 이의 생각 이해 및 판단, 자기의 생각 발표, 주의 깊은 관찰, 정확한 해석, 독서 기술 체득, 독서의 즐거움, 언어 기술 체득, 직업인으로서의 언어 생활,	언어에 대한 개념, 국어에 대한 이상	문학 감상과 이해, 문학 지도, 방송, 영화, 연극, 소설 등의 평가, 문학 작품 상, 창작	언어 문화 이해, 국어(國語國字) 체에 대한 관심	중견 국민으로서의 교양, 민주국민적인 사상 감정 도야, 국가의 공민
제 2 차	세련된 국어 교양,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 이해력과 표현력, 다른 이의 생각 이해 판단, 자기의 생각 발표, 주의 깊은 관찰, 정확한 해석, 독서 기술 체득, 독서의 즐거움, 언어 생활, 독서 습관, 언어 문화 이해	국어의 이상, 언어에 대한 개념	문학 감상 태도, 고전에 대한 소양, 방송, 영화, 연극, 소설 등의 평가, 문학 작품 감상, 창작	한자, 한문, 국어(國語國字) 문제에 대한 관심	건전한 사상, 민주 생활 개성, 유능한 사회 생활, 국민적인 사상 감정 도야
제 3 차	국어사용의 기능, 국어사용의 태도, 언어 생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해와 표현 기능 신장, 각종 형식의 문장 학습	사고력, 판단력, 문제 해결력, 국어 사랑, 국어 이해	창의력 함양, 풍부한 정서, 아름다움, 국어 국문학의 기초적인 이론	국어 문화 사랑, 민족 문화 발전, 국어 문화 이해	건실한 중견 국민 양성, 사회 발전 선도
제 4 차	비판적 이해, 효과적 말하기, 판단하며 듣기, 글의 이해 및 평가, 독서량 신장, 표현법	언어지식, 국어 지식,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징, 국어사, 국어의 규칙,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	창의적 표현, 문학지식, 문학 감상력, 상상력, 창의적 표현, 문화 유산으로서의 문학, 문학지식, 작품 평가	국어의 발전, 민족 문화 창조	인간의 내면 세계 이해
제 5 차	국어 생활, 효과적인 표현과 이해,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 국어 사용, 효과적인 말하기, 말의 이해와 판단, 글의 이해, 비판하며 읽기, 창의적 쓰기	언어지식, 국어 지식, 국어 이해	문학 이해, 창조적인 체험, 미적 감수성, 문학의 이해 및 감상	국어의 발전, 민족어 문화 창조, 민족의 언어 문화 계승, 발전	인간의 삶 이해
제 6 차	국어 생활, 표현과 이해, 언어에 대한 태도, 정확한 국어 사용	국어지식	문학감상, 문학지식, 창조적 체험, 미적 감수성	국어발전, 언어 문화 창조	인간의 삶
제 7 차	언어 활동, 정확한 국어 사용, 언어 활동에 대한 지식, 국어사용의 원리	언어의 본질, 언어에 대한 지식, 언어의 작용, 언어 현상,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신장	문학의 본질, 문학에 대한 지식, 국어 자료 비판적 이해, 사상과 정서의 창의적 표현	국어 문화, 국어 발전, 민족어 문화 발달, 국어의 발전, 국어 문화 창조	

### 3. 국어관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

지금까지 교수요목기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문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로 하여 각 시대별 국어관의 특징과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비교를 위하여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정리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 <표 2>이다. 이를 찬찬히 살펴보면, 시기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과 비중이 차이가 있는 점도 보이지만, 커다란 흐름도 보인다. 달라진 점은 제1차, 제2차, 제5차, 제6차에서는 국어사용기능, 즉 국어활동 부문이 강조되었고, 제3차, 제4차에는 지식 방면이 강조되었으며, 제7차에는 문화 방면에 강조점이 놓였다는 점 등이다.<sup>3)</sup> 반면에 커다란 흐름이라면 ‘국어 활동, 국어지식, 문학, 국어문화, 국민 정신’ 등과 같이 국어과에서 일반적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요소들은 그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고루 등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비중이나 강조점이 놓이는 쪽이 달라지는 일은 있었지만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완전히 백안시하거나 무시했던 모습은 전혀 목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검토 결과, 역사적으로 우리의 국어관을 구성해 왔던 중심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이다. 그것은 바로 ‘국어 활동, 국어지식, 문학, 국어문화, 국민 정신’의 다섯 가지이다. 이 다섯 항목은 시대가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철학이 바뀌거나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국어관을 구성하는 중추(中樞)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다섯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요소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골고루 배려하는 사려 깊은 국어관을 가져 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사실 국어교육학, 국어학 등의 개론서를 보면 도입 부분에서 단골손님처럼 짚고 넘어가는 항목이 「국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용어의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개념을 바닥에 깔고 있는 교과목명 「국어」의 개념 또한 불투명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수행한 관찰 작업은 이처럼 불투명하고 나아가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국어」의 외연이 얼마나 상이할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이런 작업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국어교육 관련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국어」의 외연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국어관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이 ‘국어 활동, 국어지식, 문학, 국어문화, 국민 정신’의 다섯 가지로 귀납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 다섯 가지 부문은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둥들이었으며, 비록 부침은 있었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문을 완전히 백안시하는 일은 없

3) 단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정신’에 관련되는 부분에 누락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유보한다.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주장은 이 다섯 가지 중의 일부만을 앞세워 그것만으로 「국어」 과목이 성립할 수 있다고 우기는 일은 더이상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다섯 부문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찰에서 보거나,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균형을 취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이 내용들은 「국어」 과목을 제대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며, 역사적 검증도 거친 것이기 때문에 필수 요소로 잡을만 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4. 입시와 ‘국어관’의 왜곡

역대 교육과정 문면에 나타난 ‘국어관’의 흐름을 본다면 역사적으로 어느 한 부문이 완전히 무시된 적이 없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 왔는데도, 국어교육연구회에서 「국어」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연구 발표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요컨대, 우리의 「국어」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문제란 말인가? 실제로 최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교육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학생지도 현장의 ‘현실’ 사이에 놓인 괴리(乖離)가 얼마나 아득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 체제는 수능시험을 통해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도하며, 이 쪽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내용, 즉 각 교과목의 정상적 운영 등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교장추천제, 내신성적 같은 쪽에서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역할 배분은 매우 이상적인 것이며, 이론적으로는 별다른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어과목에서 중요시해 왔던 내용들이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에 골고루 구현되어 있느니 만큼 다른 걱정거리가 생길 여지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를 무색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 진학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교육 현실이다. 국어교육에 대한 오늘의 위기감도 여기서부터 나왔으며, 지금의 이 논의를 필요하게 만든 동기(動機)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요점을 말하자면, 최근 지적되고 있는 국어교육의 문제는 국가의 기본적인 ‘국어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입시라는 교육 현실이 이를 왜곡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장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요즘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어교육의 현장을 스케치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이는 모든 일선 학교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입시에 치중하다보니 대체적인 경향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교과서를 차근차근 다루어 나가는 활동이 교실에서 거의 사라졌다.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벌써 주로 참고서에 의지하여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수업을 받는다. 그러나 그 참고서들에서는 ‘관동별곡’, ‘훈민정음’ 같은 고전 어문학 관련 내용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은 명제적 지식, 암기하는 지식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수능시험의 원칙에 따라 출제자들이 문제화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교과서 지문을 가지고 만든 문제집조차도 비중은 크지 않다. 수능시험에 교과서가 많이 출제되어 봤자 20 퍼센트 내외이기 때문이다.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문제해결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는 교과서라고 아무리 외치더라도 수능시험에서 점수를 더 많이 딸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는 참고서를 따라갈 수가 없다. 한편 이런 수능시험의 맹점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 내신 점수를 위한 평가도 평균 90점 이상의 점수를 쏟아내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마다 점수 잘 주기 경쟁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토론식 수업, 문제해결 방식의 수업, 탐구 수업 같은 말들은 교원 연수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며, 이런 용어를 입에 담은 학자는 현장의 사정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책상물림이라는 소리나 듣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국어」를 분실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같은 ‘언어 활동’도 입시와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머지 ‘국어지식, 문학, 국어문화’ 등, 뿌리 깊은 민족 전통과 관계되는 「국어」의 내용은 거의 모두 분실되었다. 대부분의 국어 시간에서 ‘항가, 고려가요, 가사문학’, ‘이두, 향찰, 구결, 훈민정음’ 같은 역사적, 문화적 지식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아니거나 거의 무시되거나 소홀히 된다. 수능시험에 조금씩 나오는 ‘고대소설, 근대소설’ 정도나 어쩌다가 조금 배우지만, 골치가 아픈 반면 점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역시 경시된다.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심지어는 국어 문화에 관한 교사들의 실력마저 떨어져 가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국어학력경시대회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어학력을 조사해 보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교사들이 이런 분야에 실력이 저하되니까 가르치지 않게 되며, 가르치지 않으니까 학생이나 교사들 자신의 실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자가 수능시험에 안 나오니까 필요가 없고, 필요가 없으니까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실력도 자꾸 저하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휘황한 논리와 애국심을 앞세워 한자 교육은 안 한다고 말하는 국어 교사마저 있는데, ‘한글 전용’ 문제와 현장에서의 ‘한자 교육’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경한 주장을 하는 국어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그럴만 한 진실이 숨어 있다. 그 진실이란 그 교사 자신이 학생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만큼의 한자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날의 국어 수업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들만 남았다. 국적이 없는 국어만 남게 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10 여년 전 학력고사를 대체할 새로운 입시모형을 개발할 때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은 했더라도 그 결과를 간과했던 것으로 결국은 우리들의 실수이다. 따라서 이 지적은 곧 필자를 비롯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책이자 반성이다. 변명처럼 덧붙이

자면, 이러한 실수의 본질은 기본적인 취지가 건전하면 그것으로 모두 좋을 줄 알았던 순진함에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식 교육’을 일생일대의 이권으로 생각하는 영악한 교육 현실이 여러 사람들의 순진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국어교육의 방향을 위하여 우려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간단하다. 목표와 이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 조건들을 용의주도하게 구축해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더군다나 교육 목표를 적어 놓은 국가의 문서보다는 입시가 모든 교육 내용을 좌우하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어교육에서 역사적, 전통적으로 가치를 부여해 왔던 교육 목표와 본질이 망실(亡失)되지 않도록 면밀한 실천 전략을 세워야 한다.

## 5. 분실된 「국어」, 국어 문화

그러면 이러한 「국어」의 분실, 즉 국어교육의 불균형 현상은 왜 그토록 우려해야 하는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전통’이라는 단어가 핵심어이다. 우리의 우려는 결국 ‘국어지식, 문학, 국어문화’ 등에 관한 내용들이 소홀히 되고 있는 현상에 집중되는데, 이런 현상은 서로 차원이 다른 두 가지의 의미에서 ‘전통’의 단절을 의미한다. 첫째, 이 ‘국어지식, 문학, 국어문화’ 같은 내용들은 그 자체가 우리말로 된 문화 전통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말로 된 전통 문화는 모두 국어라는 언어를 그릇으로 삼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떠넘길 수 있는 다른 교과목이 없다. 또 이러한 우리말로 된 전통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은 언어 현상, 예술 현상, 문화 현상 등으로 그 층위가 다양하다. 이 내용들이 바로 국어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 이 전통적인 문화 현상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우리나라 국어관의 전통이라는 점이다. 이런 결론을 위한 근거들이 바로 이 글의 전반부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위에서 증거로 제시한 역대 교육과정 문서들이 아니더라도, 「국어」라는 용어는 최소한 한반도 남쪽에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특별한 내포를 가지게 되었다. 이 용어는 이미 ‘나라 국(國)’, ‘말씀 어(語)’를 풀이한 ‘나라의 말, 국가의 공용어’라는 정도의 무색투명한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정치적, 역사적, 지정학적 이유로 이 용어에는 오히려 ‘한민족과 함께 오랜 세월을 걸쳐 이 땅에서 사용되어 온 언어, 앞으로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할 언어’ 등과 같은 민족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함의가 강하게 첨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국어 수업에서 민족 문화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 「국어」를 생각하는 민족의 정서가 아직 이를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

다나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로부터 자유로와 지는 것이 아득한 일인데다가 스스로를 아직도 약소 국가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 앞장을 서야 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그 임무를 맡을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국어 과목이 그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은 혹시 위험한 민족주의라는 혐의를 받지는 않겠는가? 근대의 세계사에서 한 때 세계를 갈등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던 민족주의와 똘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민족주의와는 구별된다. 최근 들어 급속한 정보화와 더불어 글로벌화,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다양한 여러 나라의 문화가 획일화되는 것을 오히려 우려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민족주의 사조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신민족주의’이다. 여기서는 생물학적으로 다양성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이나 민족 문화에 있어서 다양성을 강조한다. 요컨대, 세계 문화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다양성이며, 다양하지 못한 것은 문화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근대 민족주의가 끼쳤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상호존중, 공존공영 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불화와 불필요한 갈등을 적극 피한다. 따라서 신민족주의는 소박하고 순진한 민족주의이다. 이 사조에 의하면 어느 민족이나 자신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대 민족주의(nationalism, 국민주의)도 사실은 이러한 문화민족주의를 기초로 성립한 것이다. 문화적 공통성을 가지는 민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문화적 전통을 배우고 연구하며, 이를 이세(二世)들이 학습하고 사랑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이른바 ‘문화주권’의 문제로서 당연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저항적 민족주의보다는 신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경향이 세계화 담론과 함께 강화되었다. IMF 지원을 받으면서 또다시 저항적 민족주의적 입장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문화의 소실(消失), 획일화 현상을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었으며, 이 신민족주의가 지극히 소박한 사조라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동조를 얻어가는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한경구, 2000).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새로이 떠오르는 개념은 우리 민족의 문화는 우리만의 것일 뿐 아니라 전세계의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의 하나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어는 우리 민족의 말일 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언어들 중의 하나이다. 즉, 국어는 세계 언어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언어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전승하고 보존하며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강한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찾아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다. 국어 문화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또한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의 국어교육 현장에서 분실되었다고 말하는 그 무언은 바로 이러한 국어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앞으로 우리말을 제일 잘 가르치는 곳이 일본의 외국어 대학이 된다는가, 한국 고전 문학은 미국의 하바드 대학, 현대 문학은 프

린스틴 대학으로 공부하러 가야된다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우리가 문화적 전통을 가지는 민족으로서 국어 과목에서 특히 전통적인 국어 문화에 관련한 균형을 잃지 않은 ‘국어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이런 점에 있다. 이러한 국어관이 듬뿍 담긴 충실한 「국어」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문화적 자긍심을 갖춘 민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오히려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으며 문화 방면에서 세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민족이 될 것이다.

## 6. 결론 - 국어관에 부합하는 평가

이 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국어교육의 현안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 현안 문제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어」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요소들 중에서 ‘국어문화’라는 말로 포괄되는 요소들이 자꾸만 증발되거나 망실되어 가는 현실을 말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역대 교육과정의 문면에 나타난 핵심어의 양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어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다루어져 오던 요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어 활동, 국어지식, 문학, 국어문화, 민족 정신’의 다섯 가지 항목 속에 분류되었다. 이 중에서 ‘국어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한 모두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역대 교육과정을 관찰함으로써 드러난 ‘국어관’은 ‘민족의 문화 전통을 배려하는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국어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비록 우리의 전통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절대적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속에서 가지런하게 다루어져 오던 요소들을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망실해 버린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므로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 수업을 제대로 받은 학생은 우리말은 물론 우리말로 된 문화 유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춘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정상적인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면, 국어지식 방면으로는 중세 국어에 ‘아래 아, 여린 히읏, 반치음 시읏, 순경음 비읏’ 같은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음가를 알아야 한다. 간단한 고문은 해독을 할 수도 있어야 하며, 현대 국어에 대한 초보적인 언어학적인 이해까지 가능해야 한다. 문학 방면으로는 신라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문학적 전통을 알아야 하고 그 문면을 보고 이해하며, 감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당수의 작품은 암기하고 있기도 해야 한다. 태도 방면으로는 이러한 국어 문화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바람직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이루어지던 국어교육이 오늘날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입시 제도 탓이다. 현재의 수능시험에서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버젓이 나와 있는 사항들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사정이므로 어쨌든 입시에서 성과를 올려야 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인 학교 현장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현장에서 국어 문화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느 순간 분실해 버렸다. 교과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내신 성적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평가도 결국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 평가 결과에 대해서조차도 문제점이 지적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이 글에서 우려하고 있는 국어교육 현장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목표를 새로 손본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국어관이 그런 문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이 일어나게 된 중심에는 바로 현행 대학 입시 제도가 있다. 우리가 이 글 속에서 내내 지적한 ‘국어 문화 부문의 희석’ 현상이 진실로 우려할만 한 것이라면, 앞으로의 국어교육은 국어 문화 부문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국어사용기능(또는 국어 활동)과 문화의 배당에 관한 그림(김광해, 1997; 7 참조)을 응용한 다음의 그림[표 3]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그림은 이 두 요소가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항목이며 상호보완적인 것이 틀림 없지만,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같은 비율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이고자 만든 것이다. 기능 요소와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시점과 비율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만 확실히 하게 되면 국어과의 교수, 학습, 평가에서 각 요소들 간의 비중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표 4> 발달 단계에 따른 평가 내용의 배당

학령전	초등	중등	고등	수능
<b>문화 요소</b>				
국어지식, 문학, 국어문화				
수행평가<지필평가				
<b>기능 요소</b>				
국어활동, 태도				
수행평가>지필평가				

이 그림은 우리가 이 글에서 내내 찾아다닌 균형을 갖춘 ‘국어관’과 그것이 평가에 반영될 때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국어교육의 정상적인 모습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실제 내용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학 입시이다. 국어교육의 균형 문제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수능시험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현장의 대처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제 국어교육을 받고도 ‘국어문화’ 쪽에 관해서는 문맹과도 같은 학생들을 양산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국어과목과 관계되는 수능시험의 출제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

수능시험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실천 방법은 간단하지가 않다. 현재 국어 관련 분야인 ‘언어’ 영역의 내용과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극복하고자 외쳐 왔던 과거 학력고사로 회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인하여 국경마저 사라져 버린 시대이며, 지식이 즉각적으로 산업과 연결되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 같은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민족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관계되는 문화 요소들이 더 이상 소홀히 되지 않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출제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 여기서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에 국어교육학계가 동의한다면 이제 이 한 차원 높은 출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일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과제이다.

## 참고 논저

- 김광혜(1997),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金熙秀(1995), 국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희수 외(1995), 박이정.
- 김희수, 서상준, 정병현 편(1995), 국어와 국어교육, 박이정.
- 金熙秀(1969), 국어교육과 언어관의 정비, 목포교대 논문집 4집,
- 金熙秀(1977), 국어교육에 영향을 끼친 외래 이론 비판, 용봉논총 제7집, 전남대 인문  
과학연구소.
- 金熙秀(1979), 국어사랑 나라사랑의 본질, 교육연구 제5집, 전남대 교육문제 연구소.
- 정준섭(1995),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
- 엄진웅(1976), 中學校 國語科 教育課程의 變遷과 그 特性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조상국(1978), 國語科 教育課程 詳細化에 關한 研究,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옥표(1985), 국어과 교육과정의 사적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한경구(2000). 한국문화의 보편성과 국제적 공동연구, <http://news.andong.ac.kr/semina/han.htm>.



<Abstract>

## Successive View on Korean Language and the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Kwang Hae\*

This paper was designed to solve the pending problem in the field of education today. The problem refers to a phenomenon of attenuation of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at is traditionally considered as very important. To solve this problem, we first investigated the quantity of key words appeared in the document of successive Korean curricula. This investigation shows that the elements treated significantly in the traditio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five items, Korean language activities, the knowledge about Korean language, Korean literature, the culture of Korean language, the national consciousness. Among these five elements, four elements are related to the cultural tradition of Korean except 'Korean language activities'. Disappearing of traditional elements is a big loss to the country, and contemporary specialis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responsible for it.

At the core of this distorting aspect on a view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 is a problem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n Korea. The dilution of cultural education and thus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future must be normalized to restore the elements of Korean culture education.

To avoid bringing up students who have little knowledge about culture of Korean language in spite of being educated Korean language for a long time, we must change the system of making question for SAT of Korea. But it is not simple to change the direction of SAT of Korea. We must improv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assessment of 'language field', but we can not recur to the system of the past. The 21st century is a period of knowledge and

---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 Education

information. We must develop an assessment system not only for increasing the power of thought and creative ideas, but also for developing the knowledge about culture on a national language. for this parpose the skill for making question items must be taken off one stage. If the academic circl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gree with the problems and propositions suggested in this paper, we must put our wits on the rack to develop the skills for making question items for checking these abilities for cultural knowledge.